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달로 국가보훈처에서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한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거창고 교장이었던 전영창(1916~1976) 선생은 신앙과 애국심이 남달랐던 분입니다. 가난으로 중학교 문턱도 못 넘었던 전 선생은 보이어 선교사의 도움으로 전주 신홍학교에 진학합니다. 거기서 교장인 윌리엄 린튼 선교사의 눈에 들어 일본 고베 신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나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 후쿠오카 감옥에 1년간 수감됩니다. 그는 해방 후 주한미군 군종실의 통역관이 됐습니다. 미 군목의 도움으로 1947년 미국으로 유학을 갔지만 웨스턴신학교 졸업고사를 2주 앞둔 상황에서 6.25 전쟁이 터집니다. 위험하게도 귀국을 결심한 그를 몰려 학장이 막아섰습니다. 그때 전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것은 미국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요, 조국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뿐만 아니라 동포들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학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학장은 전 선생을 특별히 배려해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경남구제위원회(현 고신의료원)를 설립하고 장기려 박사 등과 함께 피난민 무료진료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미군으로부터 의료품과 구제품을 받아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라 사랑,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진보와 보수 역시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들 역시 나라 사랑의 마음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당대의 애국자들 대부분은 개신교도들이었습니다. 김구, 안창호, 류관순, 서재필, 이상재, 이준, 조만식, 남궁억 등등 말이지요. 그들이 겨레의 등불이 되어 일제의 폭압적이고 간교한 통치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나라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신앙은 애국을 동반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❷ 매주 수요일에 거리전도를 합니다. 이 지역의 생명 구원에 한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❸ 6월 중보기도카드를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❹ (교우동정) 김용현 권사님 부친께서 5월 30일에 소천하시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 이번 주 식당봉사 - 2셀

▶ 다음 주 - 1셀

◆ 6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강성찬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장순산 조태형
- 협동장로 :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9: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청 년 부	주일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